

# 광주·전남, '청년 고용·실업률' 심각...맞춤 정책 수립 시급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청년고용 부진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 하락·낮은 수준의 일자리 질 원인으로 꼽혀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사업 유치·청년 창업 활성화 전략 수립 등 제시

광주와 전남지역이 타 지역과 견줘 청년의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은 낮은 이유는 지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신생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청년 고용 회복세가 타 지역보다 더디고, 회복 격차마저 벌어지고 있어 결국,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청년고용 부진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광주·전남 청년(15~29세) 고용률은 39%로 전국 평균 46.5%

대비 7.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곳은 광주·전남이 유일했다.

특히 지난해 엔데믹 이후 전국에서 청년 고용률 회복세가 두드러진 반면, 광주·전남지역만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 청년 고용률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전체 지역민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와 전남의 청년인구비율은 각각 19.2%, 14.7%였다. 전남은 전국평균(17%) 보다 3.3%포인트 적었고, 광주는 평균을 상회했지만 부산과 대구에 비해 비율이 적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청년인구비율 감소 속

도가 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은 추세였다. 광주와 전남지역 청년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는 50만8000명이었으나, 경제활동 인구는 21만4000명(42.1%)에 불과했다. 이는 세종(35.4%), 전북(41.3%)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청년 실업률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6.1%, 6.9%로,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5.3%)보다 높았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지역의 심각한 청년취업문제의 원인으로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 하락', '낮은 수준의 일자리의 질', '성장과 고용 간 연결고리 약화',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의 정주여건', '청년 선호 일자리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지역 내 정규직,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 사이 격차가 큰 점을 들었다. 수도권에 비해 광주·전남 지역 청년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이

긴 반면, 고소득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여건이 열악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지역 내 청년층이 선호하는 교육·정보통신·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업이 부족하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농림어업·제조업·건설업 관련 업종이 많은 점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청년 고용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 불균형 및 여건 개선'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광주·전남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형 자동차, 신소재,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여건 차이로 인한 인구유출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근무경험이 아직 미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했다.

청년들이 광주·전남을 떠나지 않도록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 접근성 개선과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밖에 신생기업 육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정책을 강화도 제안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신생기업이 성장하는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신생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청년 고용률이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고용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적·경제적 맞춤형 고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군 단위 주요 통계가 제공되지 않거나, 시의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만큼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통계 인프라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은행, 자립준비청년 50명에 겨울 난방용품 지원

### 긴급의료비 등 지속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겨울 난방용품 키트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양진 광주은행 부행장과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난방용품 키트는 온수매트와 전기방석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 5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임양진 광주은행 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지역 대표은행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연말에도 경제적 어려



움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최대 200만원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했고, 구급용품 및 영양제로 구성된 의료용품 키트 120상자를 전달한 바 있다. 또 홀로서기를 시작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및 금융교육, 임직원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국세청 '골목 상권 지키기' 전통시장 장보기

### 상인회와 소통시간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4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양동구 청장과 간부 공무원이 함께했으며, 무등시장 상인회와의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양동구 청장은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큰 어려움 속에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

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청장과 직원들은 간담회 이후 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 목소리를 경청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쌀, 직원 간식 등 농산물을 구매했다.

양동구 청장은 이날 또 지방을 앓고 있는 한부모와 생활중인 소아마비 초등학생 가정 등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양 청장은 "따뜻한 선물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농협은행 광주본부, 2년 연속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24일 NH농협은행 광주본부 박내춘 본부장과 임직원들이 2023년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자산건전성 최고 수준 평가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는 2023년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본부에 선정 됐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전년 대비 신용카드와 비

이자수의 확대, 기업어신 1574억원 순증 등 사업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0.33%로 자산건전성에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광주본부는 실질적인 마케팅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와 지역중소기업대출 등을 통한 기업어신 활성화에 노력, 특히 현장 소통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한 소통채널 강

화에 힘쓴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내춘 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2024년에도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농협은행 광주본부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2년 유예법안 통과 요청

### 중대재해 예방 적극 노력 약속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면 건설기업의 99%가 넘는 중소 건설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중소·영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청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에 따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차 처벌받게 돼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폐업으로 이어지고 근로자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번에 법이 2년 유예된다면 우리 중소 건설기업들

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로,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69.69 (-8.92)
↓ 코스닥	836.2 (-3.90)
↑ 금리(국고채 3년)	3.300 (+0.014)
↑ 환율(USD)	1337.00 (+3.60)

## 광주·전남 출생아 감소 심각

### 전국도 역대 최저치 기록

광주와 전남지역 출생아 수가 또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446명으로 전월(498명) 대비 52명(10.4%)감소했다.

전남도 지난해 11월 584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전월(673명)에 견줘 89명(1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광주·전남 지역 출생아 수 감소는 지역 내 청년 유출, 혼인을 감소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전국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출생아수는 1만 7531명으로 전월(1만 8904명) 대비 7.3% 감소했고, 전년 동기 1만 8981명에 비해서도 7.6% 감소했다.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지난해 4월 1만 8484명을 기록한 후 출생아 수는 8개월째 1만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인도 뭄바이에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지난 23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의 삼성 전자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BKC'를 찾은 현지인들이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 BKC는 뭄바이 고급 상업지구인 반드라 콜라 콤플렉스의 지오 월드 플라자에 732㎡ 규모로 조성됐다. 삼성전자는 삼성 BKC에서 가전 TV, 모바일까지 전 제품군과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차원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제공>